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송 나 연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형편, 막내손자녀의 연령”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Ryff(1985, 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와 박지원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기타 선행 연구를 종합·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08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자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였고, 일부는 전화조사 및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관련 변수간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얻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80%) 60, 70대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조부모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조부모들의 반 이상이(60%)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대다수의 조부모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부모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보통으로 보였으며, 심리적 복지감도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상, 중, 하’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상, 중, 하’집단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에 비추어 사회적 지지 정도 수준별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형편, 연령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경제 형편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탐색적인 차원으로, 소규모 데이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횡적이고 일차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부모의 심리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한 종적 연구의 필요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손가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실천적 개입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조망하는 관점을 더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조손가족의 개념 .....	4
2.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 .....	6
1) 사회적 지지 .....	6
2)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과 측정 .....	10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선행연구 .....	15
1) 사회적 지지와 조손가족 .....	15
2) 심리적 복지감과 조손가족 .....	17
3)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	19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22
1. 연구모형 .....	22
2. 연구문제 .....	23
3. 용어의 정의 .....	24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26
2.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	27
1) 사회적 지지 척도 .....	27
2) 심리적 복지감 척도 .....	30

3. 자료 분석방법 .....	34
<b>V. 결과 및 해석 .....</b>	<b>35</b>
1. 조손가족 조부모의 일반적 사항 .....	3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35
2)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 정도 .....	38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	40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	4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	43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	46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49
<b>VI. 결론 및 논의 .....</b>	<b>51</b>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 .....	9
<표 2>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과 측정 .....	14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요인분석 .....	29
<표 4> 심리적 복지감 척도 요인분석 .....	32
<표 5>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	33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37
<표 7>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	38
<표 8>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	39
<표 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	42
<표 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	45
<표 11>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하위요인의 차이 ....	47
<표 12>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	48
<표 1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22
-------------------	----

## 부 록 목 차

<부록 1> 상관관계 .....	68
<부록 2> 설문지 .....	69

# I. 서 론

현대가족의 변화와 특징은 동거, 혼외출산, 한 부모가족, 재혼가족, 독거노인 등 가족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하여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 중에서도 특히 조부모-손자간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조손가족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2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가족 안정성이 약화되는 현 추세로 인하여 아동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맡아 키우는 조부모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뿌리 깊게 내면화 되어있는 가부장적 친족관계(이광자, 1988; 김미혜 · 김혜선, 2004 재인용)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조손가족은 25년 동안 50% 증가했고(Chalfie, 1994) 1997년 1.5만명(Bryson & Casper, 1999)에서 1998년 4만명(Haylips,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으로 급증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조손가족은 90년대 이후 가장 두드러진 인구학적 동향인 것으로 꼽고 있다(Fuller-Thomson & Minkler, 2000). 조손가족이 점차 익숙한 가족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며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Fuller-Thomson & Minkler, 2001; Jendrek, 1993; Landry-Meyer & Newman, 2004; Minkler, Roe & Price, 1992; Pruchno, 1999) 연구내용들은 주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조부모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정부지원 부족, 법적 문제, 사회적 소외 등을 다루고 있다(Jendrek, 1993; Minkler, 2004; Roe &

Minkler, 1999). 또한 생의 과정 관점(a 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조부모의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며(George & Gold, 1991), 조손가족 조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시되고 있다(Edwards, 1998).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친인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구 중 38.6%가 고령의 조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보건사회 연구원, 1994), 1998년에는 이들 중 50.6%가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보건사회 연구원, 1998), 이는 4년 전에 비해 12%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0년 현재 전국 노인 337만 명 중 12만 명이 넘는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추정되며(최해경, 2002),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조부모가족은 3만여 가구(조선일보, 2004. 1. 2)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손가족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학문적 접근은 시작 단계로써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나 전문적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김미혜 · 김혜선, 2004)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거의 미비하다.

조손가족은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으로 쇠약해져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과 아직은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대처방안도 취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에 있기 때문에 체력저하로 건강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육아활동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담양육은 조부모에게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역할과중, 역할혼잡, 고립감 등 부정적인 영향(권인수, 2000; 신혜섭, 1999; Burton, 1992; Dowdell, 1995)을 끼칠 수 있고 이러한 신체적 · 사회적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조부모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

은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손자녀의 양육책임과 노화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조부모들에게 사회적 지원은 이들에게 부담감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George & Gwyther, 1986),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과 친척,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양육을 조력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다울,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손가족의 상황 특성과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조부모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심리적복지감을 지원하는 정책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정도에 따라 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손가족의 개념

우리나라는 조손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제한된 연구들에서 아동을 전담 양육하는 1세대와 3세대로 이루어진 가족구조를 조손가족이라 일컬으며, 조부모-손자녀 가정, 할머니·할아버지 가장 세대, 조부모 손자녀 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다(김정은, 2002).

이에 비해 국외에서는 Grandparents-headed home, Skipped-generation household,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Custodial grandparents, grandparents caregivers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을 조용한 구세주(silent saviors), 보호의 이차선(the second line defense), 안정망(the safety net)에 비유하기도 한다(Jendrek, 1994; 윤승희, 2005 재인용).

미국의 2000년 인구조사(U.S Census Bureau)에서 명시한 조손가족의 개념은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함께 동일한 거주 단위에서 생활하면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의 의료적인 보호, 교육, 훈육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권과 아동의 일상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신체적 보호권이 있으며(Jendrek, 1994; 김다울, 2006 재인용) 이는 조손가족이 합법적인 관계의 가족임을 말해준다.

한편 조손가족의 형성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변화와 성인자녀의 이혼, 사망, 재혼 등으로 인한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근거로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성인자녀들의 약물남용과

질병, 아동 학대 및 방임, 노숙자, 미혼모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도 한다(김정은, 2002). 이 중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기의 상당수는 성인자녀의 이혼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성지혜, 2001). 우리나라 이혼 가구 수는 1992년 53.5천 건에서 2002년 145.3천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하였고(김미혜 · 김혜선, 2004), 이혼하는 10건 중 7건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통계청, 2003)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하여, 성인자녀의 이혼, 별거, 사망 등의 이유의 부재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1세대-3세대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정의하고자한다.

## 2.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

### 1) 사회적 지지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주변사람들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 작용 및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이며,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상호 보호해주고 사랑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그 정의와 평가방법이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며 사회관계의 여러 차원 - 사회적 통합,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상호작용 등 - 중 어느 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두 세가지의 특성들을 조합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Lin 등(1979)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지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망에 가족 구성원, 친척, 친구, 친지, 동료, 지역사회 등을 포함시켰고(손에스더, 2001 재인용),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감정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4개영역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Kahn(1985)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의 언행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이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충고, 안내, 정보제공, 물질적 원조,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보살펴 주는 것,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Warren, 1981)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 되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홍주우, 1999).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개념차원은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조적 특성은 관계의 존재 또는 양을 의미하고 기능적 특성은 관계의 질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내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유대관계의 양적인 측면으로 설명된다. Muller(1980)는 크기, 밀도, 접촉빈도, 관계의 혼합된 정도, 친족과 비 친족 관계의 상대적 비율, 관계의 방향, 구성원 사이의 거리를 구조적 측면으로 제시하였고, Thoits(1995)는 구조적 측면으로 지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 개인의 다양한 관계 망의 사람들과 접촉 빈도, 지속성,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관계의 틀이라 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및 유형은 관계의 대상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망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접촉빈도는 원조를 제공하는 대상과 상호작용 빈도를 나타낸다. 즉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인 측면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 · 고립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Liang et al., 1992).

반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 가를 의미한다. 기능적 특성은 관계의 접촉빈도, 지원자의 수와 같이 객관적인 사회관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와 지지에 대한 만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특성과 구별된다. Coyne과 Lazarus(1981)의 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지지를 유형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3가지 형태로 설명하였고, House(1981)는 4가지 형태로 기능적 지지를 정의하였는데, 정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지지(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 지

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 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망의 개념차원은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정도로 보았고, 지지형태 차원은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 요인은 첫째, 정서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 둘째, 정보적 지지(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셋째, 물질적 지지(돈, 물건 제공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물질적 지지행위), 넷째, 평가적 지지(칭찬, 인정, 충고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제공)로 구성되고 사회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로 보았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

학 자	사회적 지지의 개념
Kaplan(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사람들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 작용</li> <li>·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li> <li>·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상호 보호, 사랑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의 존재 · 이용가능성</li> </ul>
Lin 등(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지</li> </ul>
House(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지지, 감정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li> </ul>
Warren(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 물질적 원조, 등이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li> <li>· 어려움이 있을 때 보살펴 주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서비스</li> </ul>
Lazarus(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li> </ul>
House(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li> </ul>
Kahn(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간의 상호작용</li> <li>·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의 언행에 대한 긍정 및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li> </ul>
박지원(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li> </ul>
홍주우(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 되어지는 긍정적인 자원</li> </ul>

이와 같이 학자마다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기능적 측면을 통해 설명하려는 의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적 측면, 즉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의 주관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Shaefer(1981)의 사회적 망과 지각된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지지가 사회적 망보다 건강을 예견하는데 더 좋은 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Wethington과 Kessler(1986)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더 중요하는 것이 증명되었다(서영희, 1994).

본 연구에서 보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 및 서비스로써, 정서적 지지(관심, 애정,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평가적 지지(칭찬, 인정[認定], 충고를 해주는 것), 정보·물질적 지지(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물건대여 혹은 경제적인 도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한다.

## 2)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과 측정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주는 지표로서(신기영, 1999; 김태현 · 한은주, 2004),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적응(adjustment) 및 사기(morale)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한다(McDowell & Newll, 1990; Veenhoven, 1991). 1969년 Bradburn의 연구를 시작으로 심리적 복지감은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Diener, 1984), Medley(1976)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복지감은 생활전체에 대한 주관적

행복과 만족 또는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Bryrant 와 Veroff(1982)는 생활환경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장영은(1998)은 심리적 복지감이란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안녕감을 사회인지의 차원에서 파악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최진원(2001)은 심리적 복지감을 생활전반 혹은 인생전반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지속상태로 보고, 환경과 개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갖게 되는 총체적이고 주관적 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삶을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도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나 관계상에서의 개인의 지각 차이로 인하여 심리적 복지감은 차이를 보이는 것(전지원, 2005)으로 보았다.

또한 심리적 복지정도의 측정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심리적 복지감의 양극적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접근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는 Bradburn(1969)으로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이차원적인 접근방법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전지원, 2005 재인용). Diener(198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라고 가정하고 두 정서간의 점수차를 구하여 심리적 복지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생활만족도나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기(morale) 등을, 부정적 측면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등을 포함하여 측정하여 왔다(신기영, 1999; 이재림, 2001; Kivett, 2000).

이러한 다양한 측정개념을 근거로 Bryrant & Veroff(1982)는 애정, 긴장감, 자아평가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였으며, Diener(1994)는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인 정서로 구성하여 심리적 복

지감을 평가하였고, Aunguroch(2001)등 은 심리적 복지감을 화목, 상호의존, 수용, 존경, 즐거움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Ryff(1985, 1989)는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심리 기능(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 심리적 복지감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이는 Maslow, Rogers, Jung, 그리고 Allport의 자아이론 개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개념이다. 이것은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측정이 현재의 정서적인 결과물(outcome)만을 반영할 뿐 긍정적 심리상태의 특성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이론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발달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Ryff(1985, 1989)의 심리적복지감척도는 자율감, 목적감, 성숙감, 통제감, 자긍심,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등 6개영역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경민 · 한경혜(2004)는 ‘중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 연구에서 Ryff의 6개 하위영역을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원래의 척도 중에서 ‘자율감(autonomy)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의 경우 사회 ·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될 가능성(Keyes & Ryff, 1999)을 고려하여, 위 연구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측정은 Ryff(1985, 1989)의 심리적 복지감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감(purpose in life)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현재 및 과거의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인생계획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Allport(1961)의 이론에 근거한다(Ryff, 1985).

둘째, 자긍심은(self-acceptance)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

고 있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모두 수용하고, 자아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Maslow(1955), Allport(1961)의 자아 이론에 따르면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최적의 기능(optimal functioning), 그리고 성숙한 사람(the mature person)의 특성이 자긍심을 지닌 것이라 말하고 있다(Ryff, 1985).

셋째, 통제감(envIRONMENTAL mastery)은 자신이 얼마나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이다. 즉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자신의 필요와 가치관에 맞게 상황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고, 주변의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숙감(personal growth)은 자신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기회에 열려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탐색과 발달에 대한 노력,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시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욕구와 시도는 Maslow(1955)의 자아실현의 특징이다(Ryff, 1985).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개념과 측정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과 측정

학 자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
Medley(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전체에 대한 주관적 행복과 만족.</li> <li>·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음</li> </ul>
Bryrant & Veroff(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각</li> <li>·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li> </ul>
장영은(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안녕감</li> </ul>
McDowell & Newll(1990) ; Veenhoven(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li> <li>·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li> </ul>
최진원(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과 인생전반에 대한 긍정적정서의 지속상태</li> <li>·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갖게 되는 총체적 · 주관적 평가의 긍정적인 측면</li> </ul>
학 자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
Bryrant & Veroff(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정, 긴장감, 자아평가</li> </ul>
Ryff(1985,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감, 목적감, 성숙감, 통제감, 자긍심,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li> </ul>
Diener(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인 정서</li> </ul>
신기영(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li> </ul>
Kivett(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morale)와 생활만족도</li> </ul>
Aunguroch 외(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목, 상호의존, 수용, 존경, 즐거움</li> </ul>
이재림(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만족도</li> </ul>

###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선행연구

#### 1) 사회적 지지와 조손가족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생애전이와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복지감에 중요한 잠재자원의 하나로 지적된다(Cooke, Rossmann, McCubbin, & Patterson, 1998; 김다울, 2006 재인용). 조부모들은 중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에 있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전담양육으로 인해 조부모들은 개인적·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역할과중, 역할혼잡, 고립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권인수, 2000; 신혜섭, 1999; Burton, 1992; Dowdell, 1995). 이처럼 3세대 아동양육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조부모들에게(Dowdell & Sherwin, 1998)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보고에 의하면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nd & Goldberg-glen(2000)은 조부모의 35%가 사회적 지지 결여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조부모들은 필요한 수입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접촉도 대부분 상실하고 있다(Burton, 1992 ; Minkler, 1994). Burnette(1997)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거의 절반정도가 손자녀하고만 교류하고 있다고 하였고, Solomon & Max(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부모는 3%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조손가족 조모의 경우, 손자녀 친구들의 부모와 공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Erhle, 2001) 아동 양육, 교육과 관련된 정보에서도 쉽게 배제 될 수 있어 정보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김다울, 2006). 최해경(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여성노인의 경우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배우자 외의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가 14.6%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약 79%로, 대부분의 조모들은 의논상태조차 없이 혼자 문제해결을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자신의 친척, 가족,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Burton,1992).

한편 많은 조손가족들이 손자녀 양육비용에 의한 빈곤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노후 생활비의 주 수입원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반 노인들과는 달리, 빈곤이라는 취약한 환경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비공식적 지원 외에는 정서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원을 제공받기 어렵고, 그 결과, 일상적인 활동, 삶의 의미, 목표, 사회적 교제 등에서 일반 노인 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조부모의 자존감이나 자발성, 인간관계 등도 약화될 수 있다(김정은, 2002 ; 김미혜 · 김혜선,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조부모에게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조부모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이희섭, 2005).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심리적 복지감과 조손가족

아동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열악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부모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스트레스 뿐 아니라 동시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경험인 것과 같이(권용은 · 김의철 ; 2004),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부모 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을 탐색한 서구의 연구 결과들은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삶의 목적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지속적인 가족 정체성과 복지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Hayslip & Kaminski, 2005). 또한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이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영속되는 듯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Kivnick, 1983),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 교사,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최혜지,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손자녀 양육 후 긍정적인 생활변화가 일어난 영역을 살펴봄으로서 조부모 역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탐색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 연구에 국한되며(옥경희, 2005), 조부모들의 열악한 상황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조손가족 조부모가 겪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 노년기의 빈곤 위험 뿐 만 아니라 손자녀의 양육비 부담으로 더욱 빈곤한 경제적 현실에 처하기 쉬우며, 이는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 · 정서적 안녕상태와 직결될 수 있다. Minker, Roe & Price(1992)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70%가 이 역할이 가치 있는 일로 느끼지만 기분이 저하되고, 피곤함과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이 동시에 든다

고 하였다. Jendrek(1993)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 이후 조부모는 개인적 시간 감소, 정서적 소진, 걱정, 근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또다른 연구에서는 양육 책임감,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유, 필요한 공식적 · 비공식적인 지원이나 관심 부재, 혹은 결핍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후부터 정서적 우울과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Jendrek, 1994 ; 윤승희, 2005 재인용).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그렇지 않은 조부모의 우울증상을 5년 동안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조부모 집단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조모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그리고 최근에 손자녀 양육을 맡을수록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였다(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모의 경우 적은 수입과 재산, 근로 기회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 · 정서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uller-Thomson & Minkler, 2000).

더욱이 가족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경우 성인자녀의 잘못된 상황을 자신이 자식간수를 잘못해서 생겼다고 자신의 탓을 하기 쉬우며, 이는 자신감 상실과 우울을 가져올 수 있다(정란, 2002).

김정은(2002)은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적 ·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16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 · 정서적 안녕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여가나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의료비 및 빚 대출의 가계 부담이 클수록 조부모는 더 우울한 심리 · 정서적 안녕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해경(2002)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모의 우울정도와 그와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조모의 건강, 양육에 대한 불만감, 손자녀와의 관계 불만이 조모의 우울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조손가족 조부모는 주어진 환경과 노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우울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우울성향은 손자녀 양육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그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 3)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부터 생겼고(안귀여루, 1988),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에 있으므로 우선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Thompson과 Heller(1980)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양적으로 고립된 대상자들이 고립되지 않은 대상자보다 더 낮은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을 보였고, 이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Bergeman 등(1991)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노인의 개인능력은 더 나은 정신건강과 노후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이화진, 2004 재인용), Lawrence 등(1992)은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자기 가치감을 이끌기 때문에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해왔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낮은 사회적 지지가 더욱더 증가된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Surtherland와 Murphy, 1995), Hughes 등(1993)은 노인에서의 우울은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한 가운데 비공식적 지지망 중 혈연관계인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이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친구나 이웃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안경숙, 2002).

박미선(2001)의 홀로 된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친척, 친구의 지지망에서 지지의 크기,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거리, 정서적 지지의 제공과 수혜가 홀로 된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혔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지지망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 박봉길, 2000). 유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단독 가구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이 있으며, 또한 친척, 친구, 이웃사람들보다는 가족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조손가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인수(2000)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가 조모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미혜 · 김혜선, 2004) 정서적 · 도구

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조부모의 우울정도가 높고(Musil, 1998 ; 김다을, 2006 재인용) 자존감이 낮았다(Hayslip & Kaminski, 2005 ; 김다을, 2006 재인용)고 보고되었다.

조손가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겪는 부담감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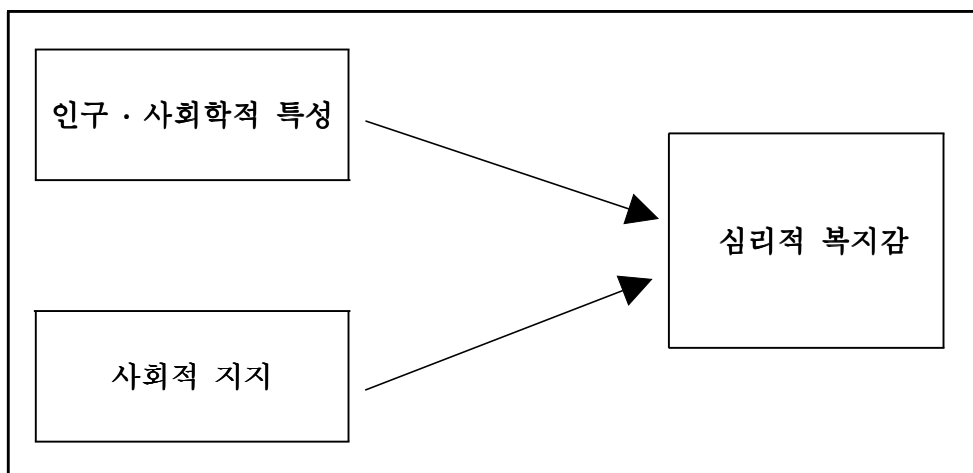
또한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여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 및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1) 조손가족 조부모

(Grandparents of the Grandparents - Grandchildren Family)

조손가족이란 성인자녀의 부재로 조부모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가족을 말한다. 조손가족의 형성원인은 성인자녀의 이혼, 별거, 혼외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써 아동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맡아 키우는 조부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는 최소 1년 이상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노인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 2)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우리는 가족 · 친구 ·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간다. 사회적 지지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이며, 개인에게 긍정적인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특징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 · 물질적지지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는 ‘칭찬과 인정(認定)을 받고 때론 나에게 충고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 · 물질적 지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도움이나 금전이나 물건 대여 등 경제적인 직접적 도움'이라고 조작적 정의 내린다.

### 3)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복지감이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은 Ryff(1985, 1989)의 심리적 복지감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목적감은 자신의 삶에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현재 및 과거의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긍심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통제감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나아가 주변의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감은 자신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기회에 열려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시도와 발달에 대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복지감이란,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했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구 광역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비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설문지는 총 30부가 수집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과 영역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은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본 조사에서 수정 및 제외되었다.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2일에서 11월 2일에 걸쳐서 약 120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은 유의표본추출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월계 종합복지관,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청, 마포구청, 구의 1동 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자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였고, 일부는 전화조사도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정 및 성신여자대학교 가족건강복지센터의 노노(老老)전문상담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면접조사를 하였고, 일부는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108부 회수되었으며, 108명의 응답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홍주우(1999)가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4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모두 그렇지 않다’에서 ‘모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alpha$ 는 .96로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표 5참고).

또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4개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개로 추출되었다.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총계는 약 7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수가 3개로 나타났다(표 3).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서적 지지

요인 1은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1개의 변수로 구성된다. 하위 요인 1이 설명하는 분산은 58% 정도였으며, 3개의 하위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각각의 요인들은 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가 .40 이상인 변수들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요인 1은 가족, 친구, 친척, 사회복지관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 혹은 이해와 격려를 받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정서적 지지’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주변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평가적 지지

5개의 문항이 포함된 요인 2가 설명하는 분산은 6.8%이었으며,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722, .767, .687, .648, .680이다. 요인 2는 주변 사람들에게 옹고·틀림을 평가받거나 잘한 일은 칭찬을 받는 등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평가받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평가적 지지’라 명명하였다.

### ③ 정보·물질적 지지

요인 3은 9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요인 3이 설명력은 5.77%이었으며, 조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정보·물질적 지지’라 명명하였다.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요인분석

요인	설문지 문항 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1요인 정서적 지지	1.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779	14.497 57.99%
	4.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732	
	5.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719	
	6.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768	
	10. 마음을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614	
	12.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793	
	13.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준다.	.743	
	16.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준다.	.682	
	18. 곤란한 문제에 처해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642	
	21.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준다.	.657	
24.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내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한다.	.404		
2요인 평가적 지지	2. 내가 한 행동의 옳고 틀림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722	1.702 6.81%
	7.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767	
	8. 내 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해준다.	.687	
	11.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648	
15.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	.680		
3요인 정보 물질적 지지	3.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준다.	.464	1.442 5.77%
	9.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677	
	14.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605	
	17.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643	
	19.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787	
	20.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435	
	22.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777	
	23.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한다.	.687	
25.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702		
		-	70.57%

## 2) 심리적 복지감 척도

심리적 복지감은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김경민 · 한경혜(2004)가 4개 하위차원으로 변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총 12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1문항만 사용되었다<sup>1)</sup>.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정적인 질문인 4,5,6번은 역코딩 되어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alpha$ 는 .81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총계는 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수가 4개로 나타났다(표 4). 각각의 하위요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긍심

5개의 문항이 포함된 요인 1이 설명하는 분산은 47%이었으며, 4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요인 1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긍심’으로 명명하였다.

---

1) 예비조사 결과 12개의 문항 중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조부모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질문의 의도는 현재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의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조부모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긍정으로 대답한 것은 현재 생활에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현재 생활에 대해 ‘이미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인데 뭘.....’라는 의미로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었다. 이는 질문에 의도와 상이한 답변이므로 수정·보완이 필요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에서 위 항목을 삭제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81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지 않다’ 문항은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목적감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요인 2의 설명력은 12.38%이며,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825, .759, .640이다. 요인 2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니고 계획성 있게 사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목적감'이라 명명하였다.

## ③ 통제감

요인 3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 적재치는 .799, .825로서 요인 3이 설명하는 분산은 10.3%정도이다. 요인 3은 주변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내므로, '통제감'이라 명명하였다.

## ④ 성숙감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4의 요인 적재치는 .769이고 설명하는 분산은 9.94%였다. 요인 3은 새로운 경험과 기회에 열려있고 시간에 따라 계속 발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성숙감'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심리적 복지감 척도 요인분석

요인	설문지 문항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b>1요인</b> 자긍심	2.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만족한다.	.744	3.902 35.47%
	4. 매일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719	
	5.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707	
	9.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한 편이다.	.703	
	11.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	.599	
<b>2요인</b> 목적감	3.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825	1.361 12.38%
	6. 나는 그날그날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759	
	7. 전반적으로 나는 계획성 있게 산다.	.640	
<b>3요인</b> 통제감	1.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799	1.133 10.29%
	8.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 하고 있다.	.825	
<b>4요인</b> 성숙감	10.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769	1.093 9.94%
		-	68.1%

\* 심리적 복지감 4,5,6은 부정적 문항으로서 역코딩하여 측정되었다.

<표 5>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요 인		의 미	설문지 문항수	Cronbach's $\alpha$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사랑, 이해, 격려, 관심	11	.96	.96
	평가적 지지	칭찬, 의논,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	5	.91	
	정보·물질적지지	사건해결 관련 정보제공, 금전 등 직접·간접적 도움	9	.91	
심리적 복지감	자긍심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	5	.82	.81
	목적감	삶의 목적과 방향성 지님	3	.71	
	통제감	자신의 삶에 스스로 영향, 주변 상황을 효과적 사용	2	.55 <sup>2)</sup>	
	성숙감	새로운 경험과 기회 시도 시간에 따라 계속 발전	1	-	

2) 통제감의 신뢰도는 .55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은 원래 각 하위영역이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본 축약형은 신뢰도가 최대가 되는 문항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의 20문항 중에서 각 영역의 구성개념(construct)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세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김경민·한경혜, 2004 재인용). Ryff와 Keyes(1995)도 미국의 대규모 조사자료를 통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축약형의 6개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33~.5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보고한 바 있다(김경민·한경혜, 2004 재인용).

### 3. 자료 분석방법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정도, 심리적 복지감의 다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중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과 종교는 가변수화(dummy variables)하여 적용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

### 1. 조손가족 조부모의 일반적 사항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108명의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조부모의 성별은 남성이 22명(20.4%) 여성이 86명(86%)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은 조모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연령은 평균 69.9세(SD=6.56)로 53세에서 86세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와의 거주형태는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는 46.3%(N=50), 배우자와 사별한 조부모는 50.9%(N=5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이나 서당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부모가 53.7%(N=58)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22.2%(N=24), 중학교 졸업은 10.2%(N=11), 고등학교 졸업은 6.5%(N=7), 전문대 이상은 5.6%(N=6)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 36.1%(N=39), 불교 15.7%(N=17), 천주교 14.8%(N=16)였으며 무교이거나 기타 응답을 한 조부모는 31.5%(N=34)로 대부분의 조부모가(67.9%)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46.3%(N=50)의 조부모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조부모는 20.4%(N=22)였으며, 건강한 편 15.7%(N=17), 보통 13.9%(N=15), 매우건강한 편 3.7%(N=4)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낮은 편이라고 느끼는 조부모가 59.3%(N=64)로 가장 많았고, 보통 24.1%(N=26),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조부모는 16.7%(N=18)이었다.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1.75명(SD=.93)으로 즉,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1명이나 2명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하고 있는 막내 손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생 44.4%(N=48) 또래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38%(N=4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체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주관적 경제형편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108)

변 수	구 분	N	%
성 별	남 성	22	20.4
	여 성	86	79.6
연 령	50~59세	6	5.6
	60~69세	47	43.5
	70~79세	47	43.5
	80~89세	8	7.4
배우자와 거주형태	함께 산다	50	46.3
	사 별	55	50.9
	이혼 및 기타	3	2.8
교육수준	무학, 서당	58	53.7
	초등학교 졸업	24	22.2
	중학교 졸업	11	10.2
	고등학교 졸업	7	6.5
	전문대 이상	6	5.6
종 교	있 다	84	77.7
	없 다	22	20.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4	3.7
	건강한 편	17	15.7
	보 통	15	13.9
	건강하지 않은 편	50	46.3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	22	20.4
주관적 경제상태 <sup>3)</sup>	보 통	26	24.1
	낮은 편이다	64	59.3
	매우 낮다	18	16.7
양육 손자녀 수	1명	49	45.4
	2명	42	38.9
	3명 이상	15	13.9
막내 손자녀 연령	초등학생 미만	15	13.9
	초등학생	41	38
	중·고등학생 이상	50	46.3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로 구성되었으나 실제로 '매우 높다, 높다'라고 응답한 조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보통, 낮다, 매우 낮다' 3개의 범주로만 분석되었다.

## 2)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감 정도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사회적 지지의 총합은 평균 74.01(SD=21.655)점, 5점 환산평균은 2.96점으로 조부모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3개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는 평균 36.32(SD=10.485)점, 점수의 범위는 11~55점, 최소값은 11점, 최대값은 55점이었고, 5점 환산평균은 3.31로서 조부모들이 보통 이상의 정서적 지지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평가적 지지는 평균 14.45(SD=4.865), 5점 환산 평균은 2.89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최소값은 5점, 최대값은 25점이었다.

정보·물질적 지지의 평균은 23.23(SD=21.655)이며 5점 환산 평균은 2.59이고 사회적 지지 하위 요인 중 가장 낮게 보였다. 점수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최소값은 9점, 최대값은 4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보·물질적 지지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친밀감이나 사랑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 지지는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표 7참고).

**<표 7>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N=108)

변 수	구 분	M	SD	5점 환산평균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6.32	10.485	3.31
	평가적 지지	14.45	4.865	2.89
	정보·물질적 지지	23.23	8.161	2.59
	사회적 지지 합계	74.01	21.655	2.97

\* 5점 환산 평균은 각 평균에서 문항 수를 나누어 계산되었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응답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이며 평균 32.56(SD=7.416), 최소값은 15점 최대값은 51점, 5점 환산평균은 2.96점으로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보통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긍심은 평균 12.74(SD=4.45), 점수의 범위는 5~25점, 최소값은 5점, 최대값은 24점,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2.55로 조부모의 자긍심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적감은 3점에서 15점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9.07(SD=2.671)점, 최소값은 4점 최대값은 15점, 5점 환산 평균은 3.02점으로 조부모의 목적감 정도는 보통인 것을 알 수 있다.

통제감은 평균 7.84(SD=1.890)점 2점에서 10점의 범위를 보이며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0점으로 나타났고 5점 환산 평균은 3.92점으로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숙감은 단일 문항이며 평균 2.90(SD=1.199)점으로 조부모의 성숙감은 보통에 가까운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성숙감의 최소값은 1점, 최대값은 5점이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심리적 복지감 중 통제감은 높은 편이었고, 자긍심은 제일 낮은 수준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참고).

**<표 8>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N=108)**

변 수	구 분	M	SD	5점 환산평균
심리적 복지감	자긍심	12.74	4.450	2.55
	목적감	9.07	2.671	3.02
	통제감	7.84	1.890	3.92
	성숙감	2.90	1.199	2.90
	심리적 복지감 합계	32.56	7.416	2.96

## 2. 인구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 1) 인구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구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9>과 같다.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 형편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03^*$ ) 남성의 사회적 지지는 65.09(SD=19.68), 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76.29(SD=21.65)이다. 즉 조모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조부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보다 높다고 보인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을 보면 50대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가 61(SD=18.12), 60대는 64.96(SD=22.28), 70대는 81.19(17.96), 80대는 94.75(SD=4.50)였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9.433^{***}$ )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60대의 사회적 지지와 70대~80대의 조부모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80대의 조부모들이 사회적 지지를 가장 높게 느끼고 있었고, 50대의 조부모들이 사회적 지지를 가장 낮게 느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t=3.871^{***}$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즉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65.84(SD=21.55), 함께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81.05(SD=19.29)로 배우자가 없는 조부모의 사

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가 사회적 지지로써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을 보면 ‘무학, 서당’이라고 응답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73.34(SD=20.28),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82.92(SD=21.08), 중학교 졸업 이상 교육수준의 조부모는 63.54(SD=22.67)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평균은 F값이 5.13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이하 교육수준의 조부모와 중학교 졸업 이상 교육수준을 지닌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의 조부모가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773\*\*\*). 보통의 경제 수준인 조부모는 87.35(SD=19.22), 낮은 경제 수준의 조부모는 70.92(SD=21.94), 매우 낮은 경제 수준의 조부모는 65.72(SD=15.60)로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검증 결과 보통의 경제 수준의 조부모와 낮은 수준의 조부모의 평균 사회적 지지는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적 지지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변 수	비 교 집 단	사회적 지지		
		M	SD	D
성 별	남	65.09	19.68	
	여	76.29	21.65	
	t 값	-.2.203*		
연 령	50~59세	61	18.12	A
	60~69세	64.96	22.28	A
	70~79세	81.19	17.96	B
	80~89세	94.75	4.50	B
	F 값	9.433***		
배우자	함께 산다	65.84	21.55	
	함께 살지 않는다	81.05	19.29	
	t 값	3.871***		
교육수준	무학, 서당	73.34	20.28	B
	초등학교 졸업	82.92	21.08	B
	중학교 졸업 이상	63.54	22.67	A
	F 값	5.139**		
종 교	있다	75.80	21.71	
	없다	69.82	20.39	
	t 값	-1.164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76.76	24.81	
	보통	80.67	19.33	
	건강하지 않음	71.82	21.05	
	F 값	1.253		
주관적 경제	보통	87.35	19.22	B
	낮은 편	70.92	21.94	A
	매우 낮음	65.72	15.60	A
	F 값	7.773***		

\* P ≤ .05 \*\* P ≤ .01 \*\*\* P ≤ .001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한 결과 조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 형편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31.67(SD=4.68), 60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30.34(SD=7.14), 70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34.55(SD=7.81), 80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34.50(SD=5.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892^*$ ). 사후검증 결과 모든 연령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적고 많음이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 서당’ 교육수준의 조부모는 30.21(SD=6.338), ‘초등학교 졸업’ 교육수준의 조부모는 37.38(SD=7.884), ‘중학교 졸업 이상’ 교육수준의 조부모는 33.67(SD=7.341)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417^{***}$ ).

사후검증 결과 ‘무학, 서당’, ‘중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과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조부모가 심리적 복지감을 가장 높게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종교<sup>4)</sup>가 있는 조부모는 33.88(SD=7.37), 종교가 없는 조부모는 28.36(SD=5.63)으로 종교가 있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증명되었다( $t=-3.268^{***}$ ).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조부모는 38.38(SD=6.793)와 보통의 조부모는 38.53(SD=6.334)로서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4) 종교의 경우, 무응답 2명, 종교 없음 22명을 제외한 조부모들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수 있었다. 한편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29.61(SD=5.966)로서 보통이상의 건강 상태의 조부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4.509\*\*\*).

사후검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up>5)</sup>가 보통이상이라고 느끼는 조부모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조부모는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라고 느끼는 조부모보다 심리적 복지감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978\*\*\*). 보통의 경제 수준인 조부모는 39.19(SD=6.669), 낮은 경제 수준의 조부모는 31.22(SD=5.967), 매우 낮은 경제 수준의 조부모는 27.72(SD=7.069)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보통의 경제 수준의 조부모, 낮은 편인 조부모, 매우 낮은 경제 수준의 조부모의 평균 심리적 복지감이 서로 각각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역시 낮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

5) 주관적 건강상태는 5개로 분류되는데, ANOVA 분석을 위해 ‘매우건강’과 ‘건강’이라고 응답한 조부모를 ‘건강’으로, ‘보통’은 그대로 ‘보통’, ‘건강하지 않음’과 ‘매우 건강하지 않음’은 ‘건강하지 않음’으로, 즉 3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변 수	비 교 집 단	심리적 복지감		
		M	SD	D
성 별	남	32.14	8.71	
	여	32.66	7.10	
	t 값	-.296		
연 령	50~59세	31.67	4.68	A
	60~69세	30.34	7.14	A
	70~79세	34.55	7.81	A
	80~89세	34.50	5.01	A
	F 값	2.892*		
배우자	함께 산다	32.56	7.71	
	함께 살지 않는다	32.55	7.22	
	t 값	-.006		
교육수준	무학, 서당	30.21	6.338	A
	초등학교 졸업	37.38	7.884	B
	중학교 졸업 이상	33.67	7.341	A
	F 값	9.417***		
종 교	있다	33.88	7.37	
	없다	28.36	5.63	
	t 값	-3.268***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38.38	6.793	B
	보통	38.53	6.334	B
	건강하지 않음	29.61	5.966	A
	F 값	24.509***		
주관적 경제	보통	39.19	6.669	C
	낮은 편	31.22	5.967	B
	매우 낮음	27.72	7.069	A
	F 값	20.978***		

\* P≤ .05 \*\* P≤ .01 \*\*\* P≤ .001

###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 및 심리적 복지감의 총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표 11, 12).

먼저 사회적 지지 상, 중, 하 정도<sup>6)</sup>에 따른 자긍심의 평균을 보면,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의 경우 자긍심의 평균은 16.55(SD=3.913), '중' 집단의 경우 자긍심의 평균은 12.59(SD=4.271), '하' 집단의 자긍심의 평균은 9.26(SD=1.190)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따라 자긍심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140^{***}$ ). 상, 중, 하 각 집단의 5점 환산점수는 3.31, 2.52, 1.86으로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의 자긍심의 평균은 보통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상, 중, 하 각 집단의 자긍심 평균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하' 집단의 자긍심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느끼고 있는 조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살아온 바에 만족하고 지금까지의 성취하고 이룬 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감의 평균도 사회적 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511^{***}$ ). 사회적 지지 '상'의 목적감은 10.35(SD=2.777), '중'의 목적감은 9.28(SD=2.531), '하'는 7.00(SD=1.886)이었고 목적감의 평균도 사회적 지지 '하'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목적감의 5점 환산 점수는 각각 3.45, 3.10, 2.33으로 사회적 지지 '상'과 '중' 집단은 대체로 보통의 목적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 '중' 이상의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사회적

6) 사회적 지지 상, 중, 하는  $M \pm SD$ 를 통해 계산되었다. 각각의 범위는 상  $\geq 96$ 점,  $52 \leq$ 중  $\leq 95$ , 하  $\leq 51$ 이다.

지지 ‘하’ 집단의 목적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를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조부모들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고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 따른 통제감 평균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5.955^*$ ). 사회적 지지 ‘상’의 통제감의 평균은 8.40( $SD=1.273$ ), ‘중’의 통제감 평균은 8.03( $SD=1.697$ ), ‘하’의 통제감 평균은 6.58( $SD=2.545$ )이다. 통제감의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심리적 지지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은 4.2, ‘중’ 집단은 4.02로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하’ 집단은 3.29로 통제감은 보통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중’이상의 집단과 ‘하’ 집단의 평균 통제감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즉 ‘하’ 집단의 통제감이 보다 낮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지를 보통이상으로 느끼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신의 성격을 대체로 좋아하고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1>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하위요인의 차이

변수	비교 집단	심리적 복지감											
		자긍심			목적감			통제감			성숙감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사회적 지지	상	16.55 (3.31)	3.91	C	10.35 (3.45)	2.78	B	8.40 (4.2)	1.27	B	3.40	1.39	
	중	12.59 (2.52)	4.27	B	9.28 (3.10)	2.53	B	8.03 (4.02)	1.69	B	2.83	1.14	
	하	9.26 (1.86)	1.91	A	7.00 (2.33)	1.89	A	6.58 (3.29)	2.55	A	2.63	1.12	
	F 값	17.140***			9.511***			5.955*			2.407		

\* 괄호 안은 5점 환산 점수, 성숙감은 단일문항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총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504^{***}$ ). 사회적 지지 ‘상’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 점수는 38.70( $SD=6.375$ ), 사회적 지지 ‘중’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 점수는 32.72( $SD=6.730$ ), 사회적 지지 ‘하’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 점수는 25.47( $SD=4.234$ )이었다. 심리적 복지감 총합의 5점 환산 평균점은 각각 3.52, 2.97, 2.32로서 사회적 지지 ‘상’집단이 보통 이상의 심리적 복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차이는 사후검증 결과 상, 중, 하 세 집단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 ‘하’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변수	비교집단	심리적 복지감 총합		
		M	SD	D
사회적 지지	상	38.70 (3.52)	6.38	C
	중	32.72 (2.97)	6.73	B
	하	25.47 (2.32)	4.234	A
	F값	21.50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숙감을 제외한 자긍심, 목적감, 통제감, 심리적 복지감은 사회적 지지의 ‘상, 중, 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즉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 ‘하’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변수 중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부록 참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변수와<sup>7)</sup>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던 변수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투입된 독립변수는 조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막내 손자녀의 나이, 그리고 사회적 지지이다(표 13).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모델의 적합도는  $R^2 = .634$ 이며, 유의수준은 .001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모델의 설명력은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그리고 사회적 지지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첫째, 노인의 사회적 지지( $\beta=.302$ )로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 $\beta=.269$ )로써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 상태( $\beta=.233$ )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으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beta=.207$ ).

결과적으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경제상태가 좋

---

7) 상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물질적 지지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이 합쳐진 사회적 지지 총합만으로 심리적 복지감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상태인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로 보았을 때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거론한 영향력 있는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13>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 심리적 복지감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성별	.015
연령	.207**
교육수준	.119
종교 유무	.126
주관적 건강 상태 <sup>8)</sup>	.269***
주관적 경제 형편	.233***
막내 손자녀 연령	-.005
사회적 지지	.302***
$R^2$	.634***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성별(여자=1,남자=0)과 종교(있다=1, 없다=0)는 더미 변수화되었다.

8) 주관적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의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회귀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도 마찬가지이다.

## VI.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상황적인 이유로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성인자녀를 대신해, 아동에게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지속적인 안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체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함으로써 조부모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및 서비스와 상담 및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 108명의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의 상황에 관해서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손가족의 상황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손자녀를 더 많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즉 조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60, 70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70%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낮은 수준 이었고 대부분의 조부모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부모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대다수의 조부모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화진(2004)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빈곤한 조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보통이었으며, 특히 정보·물질적 지지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고 가족이나 친구, 친척, 동사무소 직원,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지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통제감, 목적감, 성숙감, 자긍심의 순으로 조부모들은 자긍심을 제일 낮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통제감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주변의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부모들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자긍심이 낮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의 자긍심 증진을 위한 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형편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조모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70대 노인 보다 80대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을 미루어 일단 연구 대상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할 경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기 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려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부모는 사회적 지지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공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경제형편이 높을수록 조부모들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70대의 조부모가 가장 긍정적인 심리적 복지감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60대의 조부모들이 연령대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하거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다율(2006)의 연구에서는 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손가족은 일반 노인과는 차별화된 관점으로 보아야하며 다양한 연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 ‘상, 중, 하’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사회적 지지 ‘상’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 ‘상, 중, 하’집단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사회적 지지 정도 별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 형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내 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의지가 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등을 말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선행연구(이화진, 2004)와 비슷한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는 각각 자긍심, 목적감, 통제감, 성숙감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한편 주관적인 건강 상태도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대체로 조부모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루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들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적 지원 및 정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센터에서의 조부모의 건강 지킴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저소득층 조모의 우울감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적 지지망 크기가 작을수록, 의논상태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최해경, 2002). 이렇듯 사회적 지지가 양적으로 빈약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조부모에게 그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의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풍요로운 노년기의 삶을 위해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하여 조부모의 이야기들 들어주는 재가 복지 서비스,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손자녀의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조부모 자신만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센터를 중심으로 손자녀의 주간 보호나 방과 후 지도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조부모들의 건강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조손가족 조부모들에 대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호 혜택 등의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 사회 센터에서는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부모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정부지원의 확대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탐색적인 차원으로 소규모 데이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횡단적이고 일차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현실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손가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실천적 개입을 하기 위한 토대로 될 것이라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망하는 관점을 더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권용은 · 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한국아동교육학회, 13(1), 211-226.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기태 ·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한국노년학회지, 20(1), 153-168.
- 김경민 · 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김다울(2006).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혜 · 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정은(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 · 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 한은주(200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81-106.
- 김혜선(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 85-117.
- 박미선(2001). 홀로 된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영희(1994). 사회적 지각과 스트레스 지각간의 관계. 계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에스더(2001). 여성노인학대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혜섭(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안경숙(2002). 노인단독가구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 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유경희(2002). 단독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망과 삶의 질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승희(2005).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 전북지역 조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진(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섭(2005).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은(1998).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지원(2005)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정신 · 이현경 · 박희숙(2006). 전라남도 조손가정 실태 및 손자녀-조부모 관계 분석, 2006년 춘계학술대회 ; 한국가정관리학회.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혜지(2006). 조손가구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2006년 춘계학술대회 ; 한국가정관리학회.
- 홍주우(1999).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사회 연구원(1994, 1998). 전국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일보. 2004년 1월 2일자.
- 통계청(2003). 인구주택 총 조사.

Bry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Bryson, K. & Casper, L. M.(1999). Coresident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U. 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23-198*.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urnette, D.(1997). Grandparents Rasing Grandchildren in the Inner

- City. *Families In Society*, 78(5). 489-491.
-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Chalfie, D.(1994). Going it alone ; A closer look at grand 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Cooke, B. D., Rossmann, M. M.,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98)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 A resour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37(2), 211-216.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owdell, E. B.(1995). Caregiver burden ;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risk grandchildren. *The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 33, 3-8.
- Dowdell, E. B., & Sherwin, L. N.(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 Across - generation Challenge to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 8-13.
- Edwards, O. W.(1998). Helping grandkin-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 Expand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 173-181.
- Erhle, G. M.(2001). Grandchildren as moderator variables in the family : Social, physiologic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of

- grandparents who are raising them. *Family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Functions*, 12, 223-241.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 Fuller-Thomson, E. & Minkler, M.(2000).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6(4), 311-324.
- Fuller-Thomson, E. & Minkler, M.(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2), 201-209.
- George, L. K. & Gold, D. T.(1991). Life course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and generational connec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 67-88.
- Haylips, B. Jr., Shore, J., Henderson, C., & Lambert, P.(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5B(3), S164-172.
- Haylips, B. & Kaminski, P. L.(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45(2), 262-269.
- Ingersoll-Dayton, Berit, Iwata, Chanpen Saengtienchai Jiraporn Kespichayawattana & Yupin Aunguroch(2001).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Styles ; The Perspective of Thai Elder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 283-302.
-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Jendrek, M. P.(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Kivett, V. R.(2000). Very-old rural adults : Function statu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1), 58-77.
- Landry-Meyer L. & Newman, B. M.(2004). An Exploration of the Grandparent Caregiv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20(8), 1005-1025.
- Lawrence, R. H. et al(1992). Perspectiv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7(2). S5-S65.
- Lin, N., Simenon, R. S., Ensel, W. M. & Kuo, W.(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 and illness ;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108-119.
- McDowell, I. & Newll, C.(1990).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Minkler, M., Roe, K. M. & Price, M.(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Minkler, M.(1994). Grandparents as parents ; The American experience. *Aging International*, 21(1), 24-28.
- Muller, Daniel P.(1980). Social Networks ; A Promising Direction f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 Psychiatric Disorder. *Social Science & Medicine*, 14A, 14-61
- Pruchno, R.(1999). Raising grandchildren ; The experiences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 *The Gerontologist*, 39(2). 209-221.
- Roe, K. & Minkler, M.(1999).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Challenges and Responses. *Generation*, 22(4), 25.
- Ryff, C. D.(1985). Adult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motivation for personal growth. In D. A. Kleiber & M. L. Maehr(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 Motivation and adulthood Vol.4(pp.55-92)*. Greenwich ; Jai Press.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nd, R. G. & Goldberg-glen, R. S.(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Solomon, J. C. & Max, J.(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Surtherlan, D. & Murphy, E.(1995). Social Suppoer Among Elderly in Two Community Progra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1(2). 31-38.
- Thompson, M. G. & Heller, K.(1980). Facets of Support Related to Well-Being ; Quantitative Social Isolation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a Sample of Elderly Women, *Psychology and Aging*. 5(4). 535-544.
- Thoits, P. 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Society Behavior*. 36, 55-79.

U.S. Bureau of the Census.(2000). Grandparents as Caregives.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ABSTRACT

### Grandparents of the Grandparents - Grandchildren Family'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ng Na Yeu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influence that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evaluated support, information and mater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purpose in life, environmental mastery, personal growth) has on grandparents of the grandparents- grandchildren family.

To observe this, the study theme that this thesis has set are as below:

First, what are the populated soci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grandparents?

Second, at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re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populate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grandparents?

Third, how i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grandparents by social support?

Fourth, what are the most psychological well-being influenced

variables among populated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religion, academic level, subjective health state, subjective financial situation, age of the youngest grandchild, and social support?

To prove it, I have formed a survey modified and supplemented of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Ji-won Park's social support scale and other prior studies. Surveying 108 grandparents living at Seoul, Kyungi province, and Daegu, the researcher has personally home visited and surveyed, and some were surveyed over phone and reported by oneself. To observe the general response result on main variables and populate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polled, I hav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for average comparison between groups, I used t-test and ANOVA, and for post inspection, I have us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so, to find out the interrelation between variables, I used Pearson's correlation an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 have observed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main results through data analysis are as below:

First, as a result of the general tendency of those who polled, women were fostering their grandchildren, rather than men, and 80% among them were in their sixties and seventies. Their academic standards were low and most of the grandparents had religions. More than 60% of the grandparents thought of themselves unhealthy and it was surveyed that most of these grandparents had difficulties financially.

The social support that grandparents were experiencing showed middle poi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vestigated as average level.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by sex variable on population and sociologic, age, presence of spouse, education level, subjective financial situ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it showed difference by age, academic level, religion, subjective health state,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e.

Third, at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ree volume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Top" group showed the highest points and viewed the result of "There coul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ree volumes of social support",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rogram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se by social support.

Fourth, it showed that age, academic level, religion, subjective health state, subjective financial situation, emotional support, evaluated support, information and materi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has significant connec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Fifth, examining the result of influence that varia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has, it showed that it takes part on significant influence by social support, subjective health state, subjective financial situation, age order. In other words, higher the social support and age, and the better the subjective health state and subjective financial situation are, it shows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grandparents.

Finall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make a suggestion.

This study had limits generalizing the results because I had to analyze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y by small scale data through an observing level, and because it was done horizontally and through initial contact, there was difficulties exactly judging the cause of the effect of grand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tudy in the future needs vertical study through quality approach and by this, we could improve service and policy of Korea's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y that corresponds with reality.

Also, I need to think about this study's questionnaires.

I feel the need for thorough and realistic scale improvement about social support of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y.

Regardless of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as able to look throug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y and set up a theoretical basis. I feel that this study also has the meaning of setting up the basis of practical intervention.

Also, I am looking forward sharing the prospect ang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at occurs in variety families and factors that are interrelated with many scholars.

<부록 1>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성별	1																		
나이	-.015	1																	
배우자	-.360 **	-.265 **	1																
교육수준	-.336 **	-.208 *	.288 **	1															
종교	.197 **	-.006	.045	.064	1														
주관적 건강상태	.107	.188	-.170	-.368 **	-.236 *	1													
주관적 경제상태	-.095	.020	-.097	-.201 *	-.190	.298 **	1												
양육 손자녀수	-.040	-.246 *	.292 **	.121	.086	-.056	-.141	1											
막내 손주나이	.117	.314 **	-.244 *	-.259 **	.117	.219*	.192*	-.296 **	1										
정서적 지지	.225*	.420 **	-.331 **	-.239 *	.130	-.182	-.244 *	-.148	.075	1									
평가적 지지	.171	.258 **	-.378 **	-.152	.064	-.244 *	-.333 *	-.104	-.034	.802 **	1								
정보물질 적지지	.164	.389 **	-.282 **	-.033	.095	-.164	-.380 **	-.128	-.002	.776*	.682 **	1							
사회적 지지합	.209*	.408 **	-.352 **	-.161	.113	-.205 *	-.336 **	-.144	.028	.957 **	.870 **	.906 **	1						
자긍심	-.139	.231*	.038	.239*	.294*	-.554 **	-.508 **	.100	-.132	.433* *	.423* *	.506* *	.496* *	1					
목적감	.118	.095	-.040	.249*	.175	-.386 **	-.359 **	.052	-.192	.285 **	.315 **	.430 **	.371 **	.512 **	1				
통제감	.275*	.137	-.100	-.106	.116	-.214 *	-.181 *	-.050	.218*	.372 **	.327 **	.172	.319 **	.193 **	.195 *	1			
성숙감	-.005	.010	.110	.174	.216*	-.358 **	-.206 *	-.079	-.001	.219* **	.154 **	.223* **	.225* **	.319* **	.262 **	.129	1		
심리적 복지감합	.029	.209*	.001	.234 **	.305 **	-.584 **	-.514 **	.053	-.092	.493 **	.475 **	.538 **	.548 **	.885 **	.759 **	.462 **	.480 **	1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여자=1,남자=0),배우자(있다=1, 없다=0), 종교(있다=1, 없다=0)는 더미 변수화되었다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어르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어르신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문이오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서는 어르신의 성함을 밝히지 않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질문의 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 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가족학 전공 송나연 올림

## I. 주변 분들과의 관계(사회적 지지)

다음의 질문들은 어르신께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주위 분들(가족, 친척, 복지관분들, 동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주세요.

설 문 문 항	모두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통	대부분 그렇다	모두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그들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틀림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3.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 돈이라도 마련해준다. (예; 치료비, 용자 등)					
4. 그들은 내가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5.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준다.					
6.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7. 그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8. 그들은 내 문제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해준다.					
9.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0. 그들은 내가 마음을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11.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2.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3.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14.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15. 그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16.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준다.					
17.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준다.					
18. 그들은 내가 곤란한 문제에 처해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19.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0.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21. 그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준다.					
22.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23. 그들은 내가 몸져 누웠을 때 나의 일을 대신 해준다.					
24. 그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한다.					
2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 II.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질문

평소 어르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런편 이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내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2.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 온 바에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4. 매일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5.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그날그날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7. 전반적으로 나는 계획성 있게 산다.					
8.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9.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한 편이다.					
10.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1.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					

